

Fax

1

수신 • 박원순 변호사님

참여연대

팩스번호 • 793-4745

발신 • 윤미향

연락처 • 팩스 • 365-4017 전화 • 365-4016

날짜 • 1997년 2월 13일 (목)

제목 • 세미나 발표자 청탁

☐ 긴급 ☐ 검토요망 ☐ 설명요망 ☐ 답신요망 ☐ 재사용

내용 : 박변호사님, 어제 뉴스라인에서 만나 뵈고 반가웠습니다.

지난번 회의때 말씀드려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는 2월 27일, 시민연대 주최, 정대협 주관으로 열리는 세미나 발표를 변호사님께 부탁드렸었는데 잊고 계시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회의에 로젠 박음씨를 초청코자 했는데 개인사정상 초청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대신에 이동우 미국 워싱턴 대책위 대표가 오실 때 비디오 테잎에 인터뷰를 담아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세미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주제 : 정신대운동 어디까지 왔나? · 부제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민.형사적 해결방안”

· 일정 : 1997년, 2월 27일, 오후 3시 · 장소 : 대학로 홍사단 강당

· 주최 : 강제연행당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 주관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진행순서 :

● 사회 : 윤영애 집행위원장

인사말 : 오재식 시민연대 상임대표

기조발제 : 정신대 운동 어디까지 왔나? / 윤정옥 대표

1부 / “정신대 할머니 온거레 돕기 운동에 관하여 ”

초등학교 학생중 1. 대학생으로서. 천주교 수녀중 1. 주부로서. 사회단체로서, 홍순관

“나는 왜 이 모금운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에 대해 발표, 영상자료

● 사회 : 김성재 시민연대 집행위원장

2부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민.형사적 해결방안”

발제자 : 박원순변호사. 이동우대표. 일본 민간단체 활동가

3부 / 질의.답변

잘 부탁드립니다.